

詩와 함께 한 이곳에서 詩로 소통하고 싶어



범대순 시인이 '범대순시문학관'으로 개관 예정인 계림동 자택에서 시와 삶을 이야기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범대순 시인 자택에

'시문학관' 개관

드맹 '詩人の 집' 展판식도

3월1일 '무등산' 출판기념회

가난은 하늘이다

푸르기 때문

가난은 바람이다

푸르기 때문

때로 봄비같이

때로 눈보라같이

때로 불같이

때로 절망같이

가난은 강물같이 사랑같이

푸르기 때문

〈가난에 대하여〉

광주 출신 범대순(85·전남대 영문과 명예교수) 시인이 자택에 '범대순 시문학관'으로 꾸몄다. 자택에는 '詩人の 집' 展판도 부착된다. 계림동 자택은 시인이 이십대부터 거주해온 곳으로, 이곳에는 그의 문학인생이 고스란히 응축돼 있다.

범대순시문학관은 모두 3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증받은 책을 전시한 '시림'(詩林), 시인의 시작인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명상'(冥想), 글을 쓰고 답사를 나눌 수 있는 '지인재'(芝仁齋)로 구성돼 있다. 각각의 공간은 평생 시를 쓰며 시와 함께 살아왔던 시인의 삶을 조망할 수 있도록 기존의 서재를 리모델링했다.

시인의 자택 정원에는 커다란 은행나무가 자리하고 있어 고적한 분위기가 감도는 게 특징이다. 소박한 정원이 딸린 복층 구조의 이층집에서 시인은 두 세대라는 결코 좁지 않은 세월을 보냈다고 한다.

'詩人の 집'은 광주시 남구에 위치한 문화공간 '드맹'(대표 문광자)이 '모국어의 파수꾼'인 시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취지로 시작한 사업이다. 매년 좋은 시를 쓴 시인을 선정, 시인의 집에 동판을 달아주는 것으로 첫 번째 시인으로 범 시인이 선정됐다.

문광자 드맹 대표는 첫 번째 시인으로 범대순 시인을 선정할 이유로 "범 시인은 오랫동안 광주 계림동에 거주하면서 34권의 시 관련 책을 펴낸 정도로 왕성한 창작 활동을 했다"며 "그 집은 '詩人の 집'으로 칭해도 손색이 없다"고 밝혔다.

오는 3월 1일(3시~6시) 드맹에서는 범

시인과 동료 문인,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판 인증서를 교부하고 시집 '무등산' 출판 기념행사가 열린다.

이날 한정식은 김영랑 문학상(수상작 '무등산') 수상을 축하하는 행사도 함께 치러지며 오후에는 '시인의 집' 展판식을 갖고 범대순시문학관을 공식 오픈한다.

그동안 시인은 한국적 정서와 동양적 상상력이 내재한 시를 써왔다. 그는 가난을 더욱 미천하게 만드는 자본주의 시대를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한편, 청빈했던 선인들의 삶과 문화에 주목해 왔다.

하얀 수염의 미친 선비라는 뜻의 '백수광사'(白鬚狂士)로도 불리는 시인은 1100번이나 무등산을 오를 만큼 무등산을 사랑하는 문인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에게 산행은 잃어버린 무등의 원시를 찾아가는 과정이자 삶의 마지막인 '결'에 이르는 과정이다.

시인은 이날 통화에서 "한평생 시라는 새로운 세계를 탐색해왔는데 시문학관 개관을 계기로 시를 사랑하는 이들과 소통하고 싶은 소박한 바람이 있다"며 "이 공간이 후배 문인들이 시민들에게 의미 있는 공간으로 남았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범 시인은 고려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1958년 '문학예술'에 '불도우자'로 등단했다. 50년이 넘는 시작활동 기간 '아름다운 가난' '무등산' '기승전결' '파안대소' 등의 시집과 시론집 '백지와 기계의 시화' 등 30여 권이 넘는 저서를 펴냈다. 문의 011-9623-4115.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진중권 교수에게 듣는

'힐링과 멘토링의 시대'

트라마센터 오늘 첫 강좌

광주트라마센터(센터장 강용주)는 지난해 정혜신, 유지나씨 등을 초청 '치유의 인문학' 강좌를 열었다. 올해 첫 강좌에는 진중권(중앙대 교양학부 교수·사인)씨를 초청했다. 25일 오후 7시 5·18기념문화관 대동홀.

달변과 독설의 우리 시대 대표 논객 진씨는 이번 행사에서 '힐링과 멘토링의 시대'를 주제로 강연한다. 최근 '미학오딧세이' 10주년 개정판을 출간한 진씨는 '교수대 위의 까치',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진중권의 서양미술사' 등 다양한 방법의 책을 집필했다.

인터넷(tnt.kwangju.go.kr)을 통해 사전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600-197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극단 청춘 단원 모집

3월14일까지 접수

극단 청춘(대표 오설균)이 2014년 신입단원을 모집한다. 지난 1989년 창단 후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청춘'은 '만월', '페르조나' 등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려왔다.

20세 이상 남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마감은 오는 3월14일이다. 입단 신청서는 다음 카페(cafe.daum.net/octheater)에서 내려받거나 이메일(octheater@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면접 및 오디션은 광주시 동구 예술극장 등에서 3월15일 열릴 예정이다. 문의 062-430-52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나눔의 의미' 박종철 소장전, 3월23일까지 유당갤러리

국체청소년교육재단은 다음 달 23일까지 유당갤러리(담양 수북면)에서 박종철 국제청소년교육재단 교수부장 미술품 소장전을 개최한다. '자연·환경·인간·만남'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박 교수부장이 수집한 동·서양 화 30여 점이 전시된다.

주요 전시 작품은 정우범의 '무등산 입석대', 오경규 '계단식 논', 김익모 '생명의 탄생', 박일재 '무등산과 황토밭', 임병성 '섬과 바다', 박종석 '인디안 합과' 등이다. 또 박 교수부장이 130여 차례의 국제교류를 통해 구입한 해외 작가들의 작품도 더해진다.

박 교수부장은 "틈틈이 모아온 소장품을 통해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부장은 조선대 지구과학교육과를 졸업하고, 부산대에서 이학박사를 취득했다. 전국환경교육연합회장, 조선대지구과학과 겸임교수로도 재직 중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오경규 작 '계단식 논'

한편 유당갤러리는 지난해 4월 남화도 건의 후원을 받아 개관했으며, 김익모 조선대 교수 초대전, 황윤주·이병오·정진희 씨 등의 그림전을 진행했다.

이번 전시가 끝나면 3월25일부터 한 달간 한국사건기자협회 광주·전남지회(회장 나명주)를 초대해 '2014 광주·전남보도 사진전 - 현장의 눈빛'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061-381-8361.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대담미술관 내일 '발레리나 따라하기'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행사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는 문화의 향기가 흐른다.' 대담미술관은 문화가 있는 날인 26일 오후 2~3시 '발레리나 따라하기' 행사를 진행한다.

조가영 그린발레단 부예술감독의 해설과 광주여대 무용학과 김영지, 오지은씨의 시범으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는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관객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조가영 부예술감독의 해설에 맞춰 직접 발레로 표현하게 된다.

대담미술관은 올해 매달 마지막 수요일 '꿈을 전달하는 행운의 나비'를 주제로 미술, 무용, 음악, 문학, 인성교육, 명상특강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참여자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으로 '행운의 나비'를 선물할 예정이다. 문의 061-381-0082.

한편 매달 마지막 수요일 광주·전남지역 문화시설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롯데시네마 수안, 메가박스 하남, 롯데시네마 광주, 롯데시네마 총장로, 메가박스 광주, 롯데시네마 상무에서는 오후 6~8시 상영되는 영화를 3000원 할인된 5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기타 문화 시설의 혜택은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www.culture.go.kr/wday/wDayInfo.j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www.kjhr.com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광주맛집 5회 연속 1등맛집 선정

2006년(1기), 2008년(2기), 2010년(3기), 2012년(4기), 2014년(5기)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세미나, 가족모임, 비즈니스 미팅에는 역시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준비하겠습니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홀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 1등맛집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맞춤형 출장 도시락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카페 보네르 www.geumsoojang.com